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종려주일예배 Palm Sun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호산나 호산나 (찬132/새141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탁정호 장로 2부/이근제 집사 3부/이완희 집사 4부/최유진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 찬양해 호산나(David T. Clydesdale 편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세례/입교식 Baptism..... Altogether **다같이**
1부(유아)/배노아(Noah) 2부(유아)/조건희(Ezra) 3부/입교자, 세례자(6면 참고)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누가복음(Luke) 4:1-44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 (John) 5:19-29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Come & See 미라클(1) 기적이 기저귀 되지 않게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16) 아들도 그와 같이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찬330/새272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18초의 요행이 아니라 훈련을 믿었다!

Believed in Training, Not 18 seconds of Luck!

수술 후 치료 중, 성도님들의 수많은 격려의 글 중에, 저를 미소 짓게 했던 글이 "목사님 좋아하시는 풋볼 경기 맘껏 보세요"였습니다. 마침 프로 미식축구 플레이오프 시즌이었는데, 모처럼 주말 늦은 오후 LA 램스와 시카고 베어즈의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기 시즌 성적이 더 좋은 시카고에서 LA팀이 원정가서 치르는 경기였습니다. 따뜻한 캘리포니아 날씨가 익숙했을 선수들이 눈 내리는 추운 시카고의 그 유명한 Soldier Field에서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17대 10으로 승리를 코 앞에 두고 있었지만, 시카고의 마지막 공격이 경기 종료 18초를 남기고 기적적인 터치다운 플레이를 하면서 17대 17로 동점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숨 막히는 연장전 끝에 LA 램스가 디비전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저는 연장전 경기보다, 마지막 18초 남겨 두고 연장전 15분에 승부를 거는 코치 손 맥베이의 결정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18초면, 또 다른 기적이 없으리라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풋볼은 마지막 2분, 아니, 마지막 몇 초를 남기고 게임을 뒤집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긴 경기를 18초 남기고 아쉽게 연장전에 들어가야 하는 팀의 입장에서 18초 동안 적어도 두 번의 공격 기회를 이용해서 3, 40 야드 진행할 수 있다면, 공을 차서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포기하고 연장 15분에 들어가는 결정을 코치가 합니다. 손 맥베이 코치는 2017년 최연소의 나이로 프로 풋볼팀 맡은 코치로 유명합니다. 2016년 가장 열세였던 팀을 2021년 슈퍼볼 우승팀으로 만든 전설적인 코치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는 명장입니다. 그가 18초의 기적보다는 15분의 연장전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요행을 바라지 않겠다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 만큼 자기 선수들을 호되게 훈련시켰기에 18초 요행보다, 끝까지 실력으로 붙어 보겠다는 코치의 자신감이었다고 믿습니다. 둘째, 다 졌다 생각할 수 있는 경기를 극적으로 동점으로 돌린 시카고의 사기를 잠시나마 잠재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18초의 공격 기회에 실수를 한다면, 사기가 진작된 홈경기의 시카고에 영똥한 기회가 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코치의 결정이었습니다. 셋째, 연장전에 들어가기 전, 코치가 선수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원점이다" "다 이긴 경기를 아깝게 진 것이 아니다" "이제 제대로 붙어 볼 시간이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땀 흘려 훈련 받았다" "나가서 너희들의 실력을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행 보다는 땀 흘려 훈련 받았던 선수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행 보단 훈련 받은 실력입니다. 제자훈련에 도전하십시오.

While going through treatments after my surgery, I received countless words of encouragement from congregation. Among them, the following put a smile on my face, "Pastor, watch football games to your heart's content." It so happened that it was during NFL football playoff season.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 watched a game, late afternoon on a Sunday, between LA Rams and Chicago Bears. It was an away game for the LA team in Chicago, against a team with much better season standing. The game was a nail-biting match in the famous Soldier Field arena in cold snowy Chicago for the California athletes who are more familiar with warmer weather. The score was 17 to 10 with victory at their grasp for the Rams. With 18 seconds remaining, Chicago's miraculous touch-down pushed the game in a tie, 17 to 17. The game concluded a breathtaking overtime with LA Rams snatching the division title. I want to talk about Coach Sean McVay's decision on the 18 seconds remaining, not the overtime game.

18 seconds may not be enough time for any kind of miracles. However, it is common in football games to overturn in the last 2 minutes or even with few seconds remaining in the game. From the perspective of a team that almost won the game with 18 seconds remaining, having to face overtime, there may be two opportunities to attack in those 18 seconds; move 30, 40 yards, and they can kick a field goal to add points. However, the coach's decision was to give up that opportunity and proceed to 15 minutes overtime. Coach Sean McVay is known for being the youngest person to coach a professional football team in 2017. He took the most disadvantaged team in 2016 to win a Super Bowl in 2021. He is a legendary coach, a renowned master strategist who remains active in the game. I thought about why he chose the 15-minute overtime over 18-second miracle.

First, his decision did not rely on luck. I believe he had the confidence in the team's skill and ability after the huge amount of strenuous training he put them through, rather than 18-second luck. Second, he likely determined that they needed some time, however brief, to dampen the morale of the Chicago team that just dramatically tied the game that they may have thought already lost. If the Rams failed in the 18-second offensive opportunity, that may boost even more morale for the Chicago's home game. He wanted to curtail that with his decision. Third, I imagined what the coach might have said to the team before going into overtime. I suspect it might have been a conversation along these lines, "Now, we're back to square one" "We did not lose a game we had already won" "Now it's time to go head to head for real" "We trained hard for a time like this" "Let's go and show them what we've got," because he believed in the athletes that trained hard, rather than luck. Beloved congregation! It is the trained skill, not luck. Take on the challenge of Discipleship Training.

예배
설교 시리즈

Come & See **미라클**



C.S. Lewis는 그의 책 <Miracles>에서 말하기를 "기적은 기독교에 있어서 필수적인(essential) 것이다. 다른 종교, 힌두나,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연의 영역 밖으로 나가기를 요구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자연적인 영역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 버렸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깨고 들어오는 신적 능력, 구원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떨어졌기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복음이며, 좋은 소식인데, 바로 구제불능의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가능케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루이스도 동의하는 것이지만, 기적의 가능성을 깨 버리면 기독교 역시 깨어집니다. 그것은 기적이 기적으로 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적은 소위 기적 중의 기적(the Grand Miracle)을 포인트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루이스가 <미라클> 책을 썼던 시대적인 배경은 자유주의 신학 즉, 기적을 배격하고,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은 신화라고 주장했던 신학사

조가 판을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적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그 연장선에서 이 시대의 문제는 기적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무관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믿으며 세상을 향한 Come & See(와보라!)를 담대히 외치고 싶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우연히 찾아온 신의 친절한 행위'(random acts of kindness)가 아니라, The Grand Miracle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살펴보는 이유는 기적을 믿자는 의미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오심과 구세주로 오신 주님의 사역에 대해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기적이 시작됩니다!! Come & See!!

김한요 목사

선교
선교 바자회

다시 돌아온 바자회!



그동안 선교 바자회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베델교회의 선교를 향한 천국 잔치의 은혜를 풍성히 부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성도님들의 작고도 귀한 섬김과 헌신들이 모여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각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은혜와 감격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올해도 동일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Come and Best Buy for Mission'이라는 표어 아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현장을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번 바자회가 단순히 물건과 음식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모든 성

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쁨으로 참여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바자회를 위해 기쁨으로 물품을 도네이션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당일 음식 판매를 위해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각 목장 성도님들, 그리고 도우미 권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나누실 예방팀과, 식품 판매를 위해 물품을 소분하고 판매를 도울 베델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들(BYM, CIM), 예살 청년들까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학교에서 준비하는 식품 판매는 사전 주문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와 나눔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기대합니다.

4월 18일(토) 토요일 새벽 험시바 기도회 후 코트야드에서 기쁨으로 모두 함께 뵙기를 소망합니다. Come and Best Buy for Mission!

김응진 집사



Come&See 50 특집 2

베델의 여정

행복한 베델인



지나온 50년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980년 40대 초에 베델의 가족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던 중, 1990년 3대 목사님 이신 손인식 목사님의 부임으로 날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섬기러 왔노라"의 주제로 1차 베델동산이 시작되었고, 우리 부부는 물론 많은 분들이 영적 탄생을 새로이 하며 은혜를 바탕으로 섬김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신실



한 동역자들도 날마다 그 수를 더해 갔고, 돌탕이라 불리던 이들이 함께 섬기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지난 시간이 지나 어느덧 100차를 넘어 101차 베델동산이 이어지고 있음이 주와 함께 한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연이어 부동산, 싱글동산(현 Beyond the Blue), 해외동산까지 사슴처럼 뛰며 비둘기처럼 순전한 순종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찾아 전도생활도 병행하며 하루하루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김진영 선교사님의 선교사 파송으로 선교의 꿈도 꾸게 되었고, 선교사님의 러시아 파송 후 문화선교팀의 일원으로 선교의 물결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에 부어주신 역사는 개인의 감동과 은혜를 넘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감을 생생히 보게 되었던 것이 어제 일처럼 다가옵니다.

2012년 김한요 목사님이 4대 목사님으로 오시면서 또다시 말씀과 기도와 선교로 우리의 가슴은 다시 뛰었고, 셀모임 때마다 나누는 은혜는 삶이 되고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던 어제가 희년의 해를 맞이하며 더 확장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한 알의 겨자씨처럼 우리 세대가 행복하게 믿음을 가꿔 온 것처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는 하나님의 일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베델과 함께한 여정이 감사해하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베델교회가 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난 참 행복한 베델인 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 가운데 작은 순종으로 계속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은혜의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정혜 권사

사역 소개
금다식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 사랑!



금다식은 '금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식사'를 섬기는 사역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유치부, 초등학생, Awana와 영어·한어 중고등부 금요일 집회, 그리고 예살 청년들의 Family Friday Night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와 교사, 봉사자들 약 250명을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팀장 박성남 장로님과 박현선 권사님을 중심으로, 2026년 사역 권사로 임직된 저 주경아 권사와 안수집사 강명성 집사를 비롯한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한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준비는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빛어내는 시간입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 앞에 서고, 바쁘게 손을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서로를 향한 웃음과 격려가 끊이지 않으며 "모든 사역은 함께하는 팀원들의 행복과 즐거움이 우선"이라는 팀장님 부부의 motto처럼 우리의 기쁨과 사랑은 자연스럽게 음식에 담기고, 그 따뜻함은 식탁 위에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이들이 수줍은 얼굴로 다가와 "맛있어요"라며 한 번 더 음식을 받아 갈 때,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돌아서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때,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마음이 우리의 수고를 눈물겹도록 값지게 만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자 했던 마음조차, 그 순수한 감사 앞에서는 오히려 더 깊은 은혜로 되돌아오며, 그 순간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사역을 통해 우리가 무언

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금다식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사역이 아니라,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영혼을 품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과 정성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 언젠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뜻한 음식을 들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섬김의 참된 의미를 다시 배우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이 귀한 사역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감사를 더해가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경아 권사

교회학교
미디어 금식

또다른 금식

고난주간 특별집회에 나아오는 자녀들은 미디어 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난 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시간 동안 깊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디어 금식 전단지지는 각 부서를 통해 전달됩니다. 전단지지는 (detachable/탈부착가능) 스티커 3장과 함께 배부되는데, 전단지를 집에 들고 가서 집에 있는 핸드폰, 태블릿, 티비 등 전자기기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미디어 금식은 3월 30일-4월 4일까지 총 6일동안 진행됩니다. 전단지 하단에 날짜가 써있는 동그라미에 부모님께서 사인을 해주시고 총 6일동안 금식을 모두 마친 학생들은 주일날(4월 5일) 전단지를 각 부서에 제출해주면 됩니다. 베델의 모든 자녀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을 위한 비디오 시청은 가능합니다.

■ 미디어 금식 기간: 3월 30일(월)-4월 4일(토)

■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949)738-7225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213)842-9329
- 유치부: 전소연 전도사 (562)282-2991 K-1: 정가영 전도사 (949)922-3234
- 유년부: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초등부: 이지원 전도사 (213)335-9049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Media Fasting Campaign
3/30-4/4 Passion Week 고난주간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고자 미디어 금식운동을 시작합니다! 나 누어 드리는 스티커를 집에 있는 미디어 도구들(TV,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에 붙여주세요! 6일동안 미디어 금식을 실천해주세요! 미디어 금식운동에 동참하셨으면 아래 동그라미에 부모님 사인을 해주시고 4/5 부활절날 제출해주세요! 모든 동그라미에 사인을 받아온 친구는 100달러를 받습니다!

To remember the love and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us, we are starting a Media Fasting Campaign during this Passion Week. Place the stickers on the electronic devices (TV, smartphones, iPad etc) around your house and refrain from using them. If you have participated in Media Fasting, please have the parents sign in the circles below and submit this paper on 4/5. If you complete Media Fasting for all 6 days, you will receive 100 talents.

말씀 묵상을 위한 비디오 시청은 가능합니다. watching devotionals through media is permitted.

Parents please sign in the circles

3/30 3/31 4/1 4/2 4/3 4/4

Parents please sign in the circles!

성례
세례/입교식

세례와 입교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에서 세례 및 입교식이 거행됩니다. 세례와 입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신앙고백의 예식입니다. '나' 라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하며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성도가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이들을 온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총 15명

- BYM(7명): 강서호, 권예준, 손유민, 송승엽, 윤예성, 이모세, 정영훈
- JM(3명): 김성우, 장카오리, 한형주
- 성인(5명): 김미진, 김용이, 배경인, 용수연, 최현철

〈입교자〉 총 15명

- BYM(8명): 권예술, 박서진, 성도혁, 손하준, 이륙, 이해성, 전예권, 홍현택
- CIM(1명): 석희운
- 예살(5명): 손하영, 양서진, 윤규탁, 이민영, 한주광
- 성인(1명): 윤창식

- ▶ 일시/장소: 3월 29일(주일) 3부 예배 시, 본당
- ▶ 문의: 박재문 장로 (949)241-4987, 배홍수 목사 (949)708-4175

3월 29일(주일) 3부 예배 시

입교 및 세례식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어주시고
이제 내 마음을 구원하는 피의 곧 세례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한 양심과 간구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성김: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유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살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관으로 이어지는 승리이며, 우리의 부활 소망이 되었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삶의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저녁집회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 주제: Come & See Jesus 가시관에서 의의 면류관으로
- ▶ 일시/장소: 3월 30일(월)~4월 3일(금) 저녁 7시 30분, 베델교회 본당
- ▶ 성금요일(4월 3일)에는 성찬식과 베델콰이어의 칸타타 헨델의 메시아 특별순서가 있습니다.
- ▶ 저녁집회 참석 시, 매일 스티커를 붙여드려 5일간 집회에 모두 참여하신 성도들께는 QTin 할인권(50%)을 드립니다.
- ▶ 자녀들을 위한 특별집회가 교회학교 모임별로 준비됩니다.
- ▶ 문의: 최재호 집사 (949)485-0722

예배 봉사자

주일에배 대표기도(4월)	4/5: ①부-정낙성 ②부-최주상 ③부-이우용 ④부-홍석규
	4/12: ①부-장지봉 ②부-황대경 ③부-홍락기 ④부-김에스터
	4/19: ①부-한상섭 ②부-이양수 ③부-홍승평 ④부-이주혜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4월)	4/4: 박기승	4/11: 박영선	4/18: 박철용	4/25: 배진용
강단꽃(3,4월)	3/29: 박선경	4/5: 장석우	4/12: 왕혜원	4/19: 김동심, 노성애, 조미리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재호(한외과), 간호사-윤경자 다음주 | 의사-오홍길(외과), 간호사-박수연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헌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종려주일** 오늘은 종려주일(Palm Sunday)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교회학교 부서는 스페셜 크래프트 등의 특별예배로 진행됩니다.

◆ **새생명축제 'Come & See Again'** 다음주 주일은 새생명축제의 날입니다. 한 주간 기도와 만남을 통해 예배로 VIP를 초청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VIP 초대장을 본당 앞 부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성도님은 비전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셔틀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세례/입교식** 오늘 주일 3부 예배 중에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에서 세례/입교자들의 단체사진 촬영이 있습니다.(6면 하단 참고)

◆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며 보여주시는 낮아짐과 죽음을 되새기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자리에 모든 성도님을 초청합니다.(7면 참고) **일시/장소:** 3월 30일(월)-4월 3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 **오늘부터 가족 Let's Be Family** '야나(YANA)'와 협력하여 한국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과 우리 교회 가정을 1:1로 연결하여 섬기는 프로젝트입니다. 코트야드에서 후원 등록이 있습니다. **설명회 일시/장소:** 3월 29일(주일) 오후 1시 비전 채플 **섬김 기간/방법:** 6월 13일(토)-21일(주일), 홈스테이, 재능, 물질 기부 등 **문의:** 박성규 집사 (714)423-8607



◆ **OICOS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사랑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4월 7일(화)-10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 OICOS 예배 특송:** 사랑목장 (조태현 목사 담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4월 11일(토) 오전 6시, 본당

◆ **102차 베델동산 모집** 102차 베델동산이 아직 참가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22일(금)-24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김성균 집사 (949)838-4110



◆ **예살 청1 수양회** 'All or Nothing'이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갖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수양회 되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문의:** 4월 10일(금)-12일(주일), 갈릴리 수양관, 공병주 전도사 (213)660-9477

◆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 - 선교 신발 도네이션** "함께 걷겠습니다, 함께 뛰겠습니다" 선교사와 함께 선교지를 향해 걸어 나아간다는 베델의 마음을 담아, 선교사의 발에 편안한 신발을 신겨 드리하고자 합니다. 선교 신발 도네이션에 많은 성도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트야드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박원규 장로 (949)433-0557,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베델한국학교 여름캠프** 배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원한 여름캠프에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아울러 교사와 TA로 섬길 분들도 모집합니다. **학기 일정:** 7월 6일(월)-31일(금)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4주, 월-금) **등록기간/등록비:** 4월 6일 오전 9시-4월 24일 오후 9시, \$950 **문의/등록:** 윤주원 장로 (949)892-9516, koreanschool.bkc.org

◆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제3회 'LOGOS' 여름 캠프** 기독교 고전 교육을 바탕으로 오전/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언어(문법/작문/복클랍) 등의 아카데미와 PE,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결합한 4주간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1부 예배 후부터 코트야드에서 상담과 등록을 진행합니다. **대상/일시:** 1-6학년(2026년 가을학기 기준), 7월 6일(월)-31일(금), 오전 9시-오후 4시 **문의:** BCA 사무실 (949)854-4013

◆ **큐티인 4월호 판매** QTin 4월호가 나왔습니다. 매 주일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4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김한요 목사 설교 '게임체인저' 시리즈 USB 판매** 지난 2022년 주일에 선포했던 설교시리즈인 산상설교강해-'게임체인저'의 USB를 코트야드 부스에서 판매합니다(16편씩 2개-각 \$10). 판매수익금 전액은 다음 세대를 위해 쓰여지며, 전도에 널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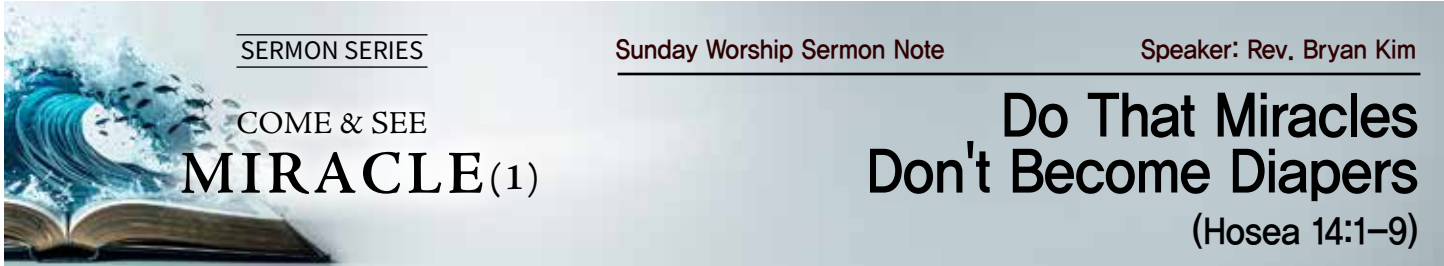
◆ **축하해 주세요** 오늘 1부 예배에 배흥수 목사/장주혜 사모의 아들 배노아(Noah)와 2부 예배에 조성준 집사/김소연 성도의 아들 조건희(Ezra)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승진 성도님(김재형 집사의 부친, 이경숙 집사의 시부)께서 3월 18일(수)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구교문 집사님(손지현 집사의 부친, 손개리 집사의 장인)께서 3월 25일(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전하리 성도님(전상우/전지나 집사의 딸)께서 3월 26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WANA(어와나):<ul style="list-style-type: none">-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중,고등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아가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주일 레위기 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편집장: 김경자 권사■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효정 집사, 차규양 장로■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1. Please share if you've experienced a miracle in your life.

Apply to Life



2. The public ministry of Jesus began, in Luke 3, when He was baptized by John the Baptist and as described in today's verse when He was tested in the wilderness. What do you think is the meaning of this? (Luke 3, 4:1-13)

3. After He overcame the tests in the wilderness, what is the first ministry that Jesus undertook? (v. 16-19) And, how would you describe the reactions of the people in a word? (v. 22)

4. In current times when people say 'I believe in God but not in prophets Elijah and Elisha', discuss how I can be the 'widow in Zarephath' or the 'Naaman the Syrian'. (v. 26, 27)

■ **Song in Response:**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Hymn 272)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